시 론

박 남 기
광주교대 명예교수

주노마가편(走老馬加鞭)

내 삶은 늘 주노마가편(走老馬加鞭)식이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은 모두 그랬다. 고등학교 때 길을 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의료보험이 없던 때여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약국에 갔더니 영양실조에 피로누적이라고 했다. 더 강인해지라는 신의 경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다시 나를 몰아붙였다. 당시 내 몸무게는 48킬로에 불과했다.

캠퍼스가 봄의 낭만으로 가득 차도 도서관에서 나와 싸웠다. 대학원 시절, 주말에도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으면 애인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서 만났다. 같이 영화를 본 후 다시 공부가 잘될 것 같으면 양해를 구하고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왔다.

유학 시절, 한국 학생들이 학위 논문 심사를 앞두고 사망하는 사건이 몇 건 발생했다. 지도교수께서는 공부도 결국 살기 위함이니 적절히 하라고 했다. 밤에 대학 연구동 안에 유령처럼 배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었다. 지금 한국은 한낮이니 한국 사람인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농담을 했다. 주위 유학생들이 골프를 즐겨도 시간 내기 어려워 골프도 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더 이상 글이 써지지 않으면 아내에게 전화했다. "2박3일 여행을 갈 터이니 두 시간 이내로 짐을 꾸려요." 아내는 불평하면서도 서둘러 짐을 꾸렸다. 과거처럼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르니 기회 있을 때 따라나서야 했다.

30여 년 동안의 교수 시절에도 매년 열리는 전국 교대 교수 테니스대회에 참가한 횟수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늘 다른 공식 일정과 겹쳤다. 총장 시절 로비 목적으로 잠시 골프를 하기는 했으나 교수로 돌아와서는 거의 하지 않았다. 퇴직 후에 시간이 많을 터이니 그때 하리라 생각했다.

그렇게 열심히 지냈던 이유는 단순 암기력이 낮은 내 뇌 특성 때문이다. 연도를 포함한 무작위 숫자나 이름 지명 사건명 등의 고유명사 등 무작정 외워야 하는 것은 나에게 고통이었다. 열심히는 지냈지만, 조그만 시골 대학의 무명 교수로 지낸 탓에 별다른 업적도 남기지 못했다. 다만 시간을 아끼며 사용하는 습관, 나를 몰아치는 버릇은 내 몸에 남아 있다.

퇴임 후에도 다양한 원고와 강연 요청으로 열심히 지내고 있다. 퇴직했으니 좀 쉬어야 한다며 젊은 날부터 아내와 함께 꿈꿔오던 히말라야 트래킹을 했다. 3월 하순에 출발해 4월 초순까지 16일간 다녀왔다. 그중 11일을 계속해서 걸었다. 어려우면 중도에 포기할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해발 4천 미터가 넘는 ABC(안나 푸르나 코스)와 MBC(마르디 히말 코스) 두 곳 트래킹을 완주하고 나니 자신감으로 충만해졌다.

등반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부터 강연을 시작했다. 연일 계속되는 강연과 밀린 원고 처리, 아들 노릇, 할배 노릇을 이어가다가 드디어 탈이 나고 말았다. 몸살기가 심해지더니 목소리가 나지 않았다. 내 몸에 대해 갑자기 짜증이 났다. 세상의 지붕을 직접 보았고, 그 길을 원 없이 걷는 호사를 누렸으면 오히려 더욱 강인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정도 일 정도 소화하지 못하고 비실거리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이 생각이 들어 토요일 아침에는 일부러 조깅을 하고 오후에 강연을 다녀왔다. 강연을 마치고 나니 조금밖에 충전되지 않은 핸드폰 배터리가 죽듯이 목소리가 아예 사라졌다. 하필 다음 주에는 전국 강연과 회의가 여섯 번이나 잡혀 있었다.

몸이 나에게 무언의 저항을 하는 모양이다. 돌아보니 그동안 주인 잘못 만나 평생 고생만 한 불쌍한 늙은 말이 보인다. 달리는 젊은 말에 채찍질을 하면 더 빨리 달릴 것이다. 하지만 이미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던 늙은 말에 채찍을 가하면 결국 쓰러지고 말 것이다. 힘든 중에도 글을 쓰도록 허용하는 내 몸의 관대함에 감사하며 채찍을 거둬야 할 것 같다. 그래도 귓가에는 무지개를 잡으러 간 소년이 무지개 잡기를 포기하는 순간 늙어 죽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 맴돈다. 나이 들었다고 늙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마(老馬)라고 생각할 때 그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차마 떨치지 못하고 있다.

힘든 탓에 잠시 쉬며 주위를 돌아보다가 평생 뒷바라지하느라고 자기를 마음껏 펼쳐 보지도 못한 채 홀로 나이든 아내를 보았다. 그래, 지금부터는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같이 무지개를 잡으러 가자. 하지만 예전처럼 달리지는 말고 천천히 걸어서 가자. 창밖에는 청춘이 부활하듯이 새봄의 연초록이 싱그럽게 피어나고 있다.

문화난장

이 현
아동문학가

'고래 낙하'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

"우와, 고래다!" 수면 위로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고래를 만나면 가슴이 뛴다. 막혔던 가슴이 뚫리며 무엇이든 해 낼 수 있을 것 같다. 수만 년의 세월을 간직한 바닷속 신비를 마주한 것처럼 가슴 속 깊이 묻어뒀던 신화 속 꿈들이 성큼 다가와 마주하는 것 같다. 거대한 몸집만큼이나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며 또 하나의 쉼이 돼줄 것 같다. 하지만 고래의 삶 또한 영원하지 않다.

고래 낙하.

영원할 것 같았던 고래도 수명을 다하면 바닷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다. 몸속에 남아 있던 공기가 빠지면 천천히 바닷속으로 내려앉으며 상어와 먹장어 등에게 살점을 나누고 게, 새우, 갯지렁이 등 작은 생물들의 먹이가 된다. 거대한 몸집을 이뤘던 뼈 또한 미생물과 박테리아의 먹이가 된다.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에 걸쳐 바닷속 생물들에게 양분이 되고 집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 된다.

거대한 몸집만큼이나 엄청난 양의 탄소를 몸속에 간직하며 살았던 대왕고래는 낙하와 함께 33톤이나 되는 탄소를 해저로 데려간다. 심해에 봉인된 탄소는 수백 년간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아 기후 변화에 맞서는 자연의 '탄소 저장고'가 된다. 대왕고래 한 마리가 낙하하며 해저에 가두는 탄소량이 나무 6천 그루의 연간 흡수량과 맞먹는다는 점에서, '고래 낙하(Whale Fall)'는 바다 생태계를 넘어 지구 환경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래 낙하'도 쉽지 않다.

플라스틱과 각종 생활 쓰레기를 삼킨 고래는, 수명을 다하고도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심해에 가라앉지 못한 채 수면 위를 표류한다. 선박과 충돌하고, 어업용 그물에 걸리고, 해상 소음으로 인한 방향 감각 상실로도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한 채 해안가로 떠밀려와 좌초를 맞이한다.

"느낌이 달라. 오늘은 왠지… 아주 긴 여행이 될 것 같아. 빛을 품었던 눈은 이제 반짝이지 않고 거친 숨결은 바다로 산산이 흩어져 가. 더 이상 파도를 밀어 낼 힘도 남아 있지 않아."

발견(키즈엠)에서 출간된 '고래 낙하'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동요와 그림책을 쓰고 있는 유청 작가의 그림책으로, 별이 되고 싶었던 고래의 여정을 통해 '고래 낙하'를 담아내고 있다.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회복과 성장의 과정을 잔잔하게 담아낸 그림책 '손톱', 솔직한 마음 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책 '봄에도 첫눈이 올까?', 다솜이의 귀여운 일탈과 일상으로의 회복 과정을 담아낸 '학교에 가지 않을 거야!'에 이어 사라지는 것들이 남기는 이야기를 생각하며 썼다는 그림책으로, 최산호 그림 작가의 강렬한 색채와 폴더 기법 구성을 더하여 심해로 떨어지는 고래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내고 있다. 검은 먹구름, 핏빛 하늘 아래,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삼켜 낙하하지 못한 고래의 대비를 통해, 자연의 순환과 생태 위기를 함께 전하며,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 고찰하게 하고 있다.

가정의 달, 오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지금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누군가의 '낙하'에서 비롯된 삶이라는 생각이다. 할아버지니까, 할머니니까, 아빠고 엄마니까, 자녀니까…. 당연한 낙하가 아닌, 서로에게 쉼이 되고 꿈이 되고 따스함이 되는 오월이 됐으면 좋겠다. 오월의 따스한 햇살처럼.

독자투고

가정의 달 쓸쓸한 이웃에 카네이션을 선물하자

5월은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다. 농촌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자식들은 객지로 떠나면서 농촌 마을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눈에 띄게 늘면서 우리의 어버이들이 공경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옛날 같으면 어른 대접을 받았을 60대-70대 나이는 이젠 젊은이 축에 속할 정도이니 현 농촌의 실태를 알만하다.

그나마 부부가 같이 살고있는 가정은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세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기정 사실이다. 이렇듯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보니 가정의 달은 무척이나 힘들고 쓸쓸한 날이 아닐수 없다.

핵가족 사회의 역풍으로 독거노인이 부쩍 늘어나면서 혼자 살다 외롭게 숨지는 사건은 이제 새삼스런 뉴스도 아닌 서글픈 현실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부양기피와 학대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노인분들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찾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홀로사는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 이웃이 찾아와 안부를 물어준다면 이 얼마나 즐거울 것인가. 우리가 안부를 살피는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따뜻한 가정의 달이 되지 않을까 싶다.

홀로사는 노인들은 단지 마주앉아 자신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을 더욱 반긴다. 그만큼 외로웠던 것이다. 어버이날을 즈음해 부모님과 동네 독거노인을 찾아 안부를 물어보고 말동무가 되어드리자. 내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듯, 보살피고 챙겨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는 노인들이 없기를 기원해본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삼서파출소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광주 정치 지형 가늠자될 광산을 국회의원 보선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웠다. 광주 출신 임문영 대통령 직속 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이 주인공이다.

야권은 대안 세력으로서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는 지역발전을 위한 견제와 균형을 역설하며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혁신당 대변인을 거쳤다. 진보당 전주연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광주시의원을 역임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상임대표를 지낸 신지혜 후보가 표밭을 다지는 중이다. 촛불행동 공동대표로 활동한 구본기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로 민형배 국회의원이 사퇴해 공석이 된 광산을 보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역시 민주당 대 비(非)민주당 구도다. 더구나 여당 강세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국민의힘과 원내 야 3당, 무소속까지 모두 가세해 6명이 맞붙은 다자 대결이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밝힌 대로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강행,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지향적 정치로 바꾸라는 특명으로 받아들인다"며 AI 심장이 뛰도록 하겠다는 임 후보의 호소에 과연 광주가 어떻게 응답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소위 시민을 위해 헌신해 본 적 없는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이 돼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도 경험할 만큼 경험해왔다. 기대와는 다른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정가에선 일정상 경선이 불가했지만 지역 내 기반, 특별시 출범과 연계 등이 작용할 것이란 예측을 제기했는데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발탁 인재 환영식에서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최고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단순한 지역구 의원 선출을 넘어 초대 통합특별시장 선거와 함께 정치 지형을 가늠할 잣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광산을 보궐선거도 본격화했다. 민주당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야권이 개혁의 구호로 존재감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여당의 전략공천과 야당의 거센 도전이 맞물리면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통합특별시 반도체 팹 여건 충족…SK 결단만 남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말 국회 특별강연에서 AI 산업 성장의 '보틀넥'(병목)으로 자본과 에너지에 더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를 제시하면서 반도체 공장 설립과 관련해 "전기가 있는 곳에 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명확한 해답을 가진 최적지로 부상하는 가운데 김영록 지사가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공개 서한을 보냈다.

실제로 특별시는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20%를 공급하고 잠재량만 444GW에 달한다. 신안·영광·해남의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단지는 기업의 생존 조건인 RE100을 실현할 사실상 국내 유일의 장소로 평가된다. 또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핵심지역으로서 설계 전문 교육기관 암(ARM) 스쿨,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에너지공대, 전남대학교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우수 인재를 적기에 공급할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가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프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글로벌 트렌드인 팹(Fab) 분산화 전략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수도권에 1극 체제를 넘어 통합특별시가 곧 출범한다. 반도체 공장이 와야 한다. 꼭 수도권에만 집중될 이유는 없다. SK의 초격차 경쟁력을 다지는데도 도움이 된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구체화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에 역량을 총동원하는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은 1천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단행하며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이에 생명줄인 물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특별시가 주목받고 있다. 이미 필요량을 채우고도 남는 수준이어서다. 인재도 준비돼 있다. 파격적인 재정·제도적 지원도 가능하다. 호남 전체의 인구와 잠재력을 고려하면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SK그룹의 비전을 신속하게 실현하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했다. SK는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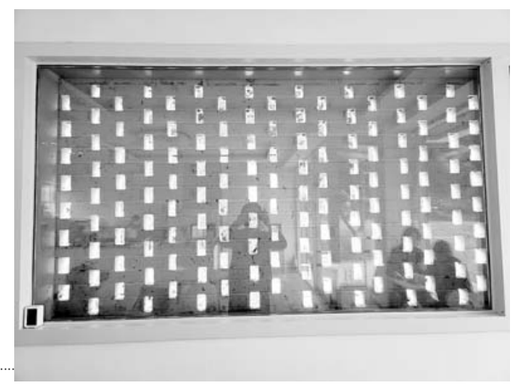
디카시 광장

거기 누구 없소

조필

늘 쫓아 다닌 허상의 끝

말없는 함성으로
나를 찾아가는 시간



※ 시작노트

나는 누구인가? 타성에 젖은 몸 놀림.
바라보는 대상에 심취되 자신을 망각하고 살아온 날들을 소환해준 수많은 창.
격자무늬 구멍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에 꿈틀대는 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를 일깨워준 셔터의 비망록.
아직도 살아있다고 소리없이 항변하는 격자무늬 속 입들의 향연에 새롭게 나를 발견한 신비한 경험.
"거기 누구 없소" 소스라치게 놀라며 내뱉은 한마디 "깨어나라" /광주디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瀕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영지원국 650-2011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